

공동체 소식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하느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출산을 통하여, 인류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언제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는 성모 마리아의 전구로, 저희가 생명의 근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소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비를 청합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 맞이 준비에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세례성사의 은총을 내려주신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 대상: 김태선, 김태디 (미주리주 스프링필드 거주)
- 내용: 세례성사의 은총을 통하여 본당가족이 늘어나게 해주시는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1) 애찬조

- 1/1 대축일: 행사 2조.

‘세계 이민의 날 미사’ 안내(1/15 - 주일)

- 일시: January 15, 2017 at 5:00 pm.
- 장소: St. Patrick’s in Kansas City, KS (1086 N 94 St, Kansas City, KS 66112).
- 준비물: 미사 후 간식 나눔

교무금 책정에 대한 안내

안내: 교무금은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또한 의무라는 뜻은 하느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을 위하여 은총을 베풀어주시실 때 조금의 오차도 없다는 뜻도 됩니다.

성경말씀에 “여러분이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그대들도 받을 것입니다.” (마태7,2)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돌아올 때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부담이 오히려 감사할 것입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238	220	502	44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금 주	정예진 한나	문호진 안토니오
	문예나 요안나	김준영 요셉
차 주	김정원 안젤라	문호진 안토니오
	정예진 한나	정예찬 미카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명은 안젤라	홍순익 마르티노
		최은미 아네스
차 주	정수한 베드로	김태중 예레미야
		김시연 엘리사벳

애찬 봉사자

금 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잔치, 행사 2조.
차 주	박정자, 한순례, 김경돌, 박옥희

헌금 봉사자

금 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차 주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24 / 25일	33 / 113명	192 / 384불	1,000불
김태중, 이내익, 현교정, 차호섭 (총 4세대)			
구유예물	161불		
건축헌금	지난주 합계: 50불, 총합계: 9,600불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hin@daum.net



오늘의 전례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습니다. 요한 사도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고 선포합니다.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분,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느님 본질의 모상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환성을 올립시다.

그림 묵상

우리의 어머니 성모마리아

“거룩하신 어머니,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하늘과 땅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임금님을 낳으셨나이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천상 예루살렘을 향해 지상에서 순례 길을 걷는 하느님 백성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분은 자녀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며, 우리를 위해 전구해 주십니다.

-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서 :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6,22-27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화답송 : 

-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거래들을 이끄시니, 거래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이다.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말씀입니다. 4,4-7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6-21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다. 여드레 뒤 그 아기는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온전한 하느님의 어머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나셨다”는 말을 듣다 보면 예수님이 신성은 하느님에게서, 인성은 성모님에게서 각각 분리해서 받은 반신반인의 존재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느님이며, 동시에 온전한 인간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모님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를 제외하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느님의 아들, 곧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도 이러한 그리스도교 신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성모님을 인간 예수의 어머니라고만 부른다면,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서로 나누어지는 반신반인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성모님을 온전한 예수의 어머니, 더 나아가서 하느님의 어머니라 부릅니다.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분이 낳으신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지 않는 온전한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면 될 것을 굳이 성모님에게까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붙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때 어떤 의미, 어떤 느낌이 떠오르는지 묵상해 봅시다.

먼저,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때, 진흙으로 빚어진 비천한 인간이 하느님을 나올 수 있었음에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성모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면서도 하느님께 철저히 순명하심으로써 하느님을 낳으신 분입니다. 이러한 성모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비천한 몸을 지닌 우리도 하느님의 뜻에 철저히 순명하면 성모님처럼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성모님처럼 하느님 뜻에 순종한다면 우리도 하느님의 일을 하고, 하느님을 선포하며, 하느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성모님처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불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오직 성모님만이 그분을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은 우리 희망을 표현하는 호칭을 넘어서 성모님께만 유보되어 있는 칭호입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말씀이 당신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셨던 성모님 덕분에 성자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 모두 그분을 보게 되었음에 감사드리며 성모님을 칭송하며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이런 성모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기도 안에서 성모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십사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의 전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잘 알고 있기에 하느님의 어머니를 우리들의 어머니로 모시고 있음에 기뻐하며 오늘 축일을 지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기억하는 오늘 교회는 특별히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종족, 종교, 이념 등의 대립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며, 죽고 죽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는 세상 모두가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평화와 화해를 이루기를 기도하며 하느님의 어머니이시자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기를 기도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와 노력이 성모님의 전구와 합쳐질 때 하느님께서는 세상에 참된 평화가 가득한 하늘 나라를 가져다주실 것입니다.

- 염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요한 14,27)

2017년 새해 첫날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한 해 동안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롭게 지난해를 잘 견디었습니다. 특별히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꿈과 소망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좋은 열매로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1976년 교황 바오로 6세께서 매년 1월1일을 ‘세계 평화의 날’로 정하신 후, 교회는 해마다 1월1일을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은 ‘세계 평화의 날’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하느님께 기원하며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마리아께 전구하는 날입니다.

평화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나 분쟁, 억압과 폭력사태 등으로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평화는 인간 존엄성의 바탕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인권은 평화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우리 사회는 인간의 가치보다 물질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가치 전도 현상이 심각하여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더 고통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문제를 경제논리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유희과 경제만 좋아지면 모든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집단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사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대로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새로운 삶의 방식

을 채택’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즉 “소유에 대한 존재의 우월성, 사물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을 추구하는 “올바른 가치 기준”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생명의 복음」 98항) 인간은 누구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이가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지혜와 슬기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지만 세상을 흑백으로만 판단할 때 공동체는 화를 부르고 불행해집니다. 사람은 자신만 옳고 정의롭고 다른 이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은 모두 상대적입니다. 하느님만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올해 우리 국민이 모두 다 함께 더 많은 지혜와 슬기를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더 밝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평화는 진리, 정의, 사랑, 자유와 인내 안에서 하느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충분히 존중할 때 비로소 회복될 수 있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가 구현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새로운 성냥

지난해도 그냥 지나갔나요?

아니랍니다.

우린 열심히 태웠답니다.

하지만, 부족하다 생각 든다면

걱정 말아요. 여기 새 성냥이 있어요.

다만 잊지 말아요. 까맣게 타버렸지만 아름다운 작년이라는 성냥을.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꿈꿈이 되새겼다.(루카 2,19)